



[기획]  
‘이유없는 호황’  
반도체 mister리  
슈퍼사이클 올라  
03



Economy

코스피	2133.48 (-7.57)	코스닥	737.33 (+1.93)
금리 (미국 3년)	0.842 (-0.032)	환율 (원-달러)	1208.00 (-5.90) (18일)

## ‘발등의불’ 아시아나 보험료 체납 논란에 노사 갈등까지 증폭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아시아나도 이스타항공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부터 5월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내지 않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6일 노사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직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보험료를 체납하면서, 해당 공제액을 유용한 것이 아닌지 등을 밝히려는 말이다.

사전협의 없는 체납 입장요구에 사측, 향후 지급보증 확인서 전달

노조, 대표자 서명 등 내용 누락 사측에 확인서 다시 돌려보내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6일 진행된 노사협의를 회령이나 배임 등 유용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측은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 노조 측에 이를 유용하지 않고, 향후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18일 건넸다. 하지만 노사가 협의했던 내용이 일부 누락되며 다시 사측에 돌려보낸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가져온 확인서의 내용이 좀 안 맞고, 지급 보증을 해야 할 대표자의 서명이 안 돼 있었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 돌려보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 “서류를 보냈으니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업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해당 보험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체납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금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며, 건강보험도 압류·징수 처분 등을 안 하는 체납 처분 유예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는 납부유예라는 게 원래 제도적으로 없다. 납부유예가 아니고, 체납처분 유예는 하고 있다. 사실상 효과는 똑같은데 개념적으로 체납 형태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보험료 체납 논란에 대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로 직원 개개인의 4대 보험 혜택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4대 보험료 연체로 부과를 면제하고, 사실상 보험료 납부를 유예 조치해 지원하는 상황이기 정부의 지원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미공제 후 추후 일시 납부할 경우 가중될 수 있는 가계 부담 줄이고자 하는 차원이다. 미납부 보험료는 매월 적립해 놓은 상태”라고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병욱 공인노무사는 “일단 납부의무는 사측에 있으니 만약 미납됐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납될 경우, 사회보험이라서 소급해서 내면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겠지만, 효력 상실의 리스크를 갖고 있다. 또 세금에 대한 포탈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았더라도, 납세 의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의무를 잘못한 것이다. 즉,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항공업계에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M&A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도 전 노선이 ‘셧다운’에 들어가, 4대 보험료를 비롯해 급여를 체납하고 있다. 지난 2월 급여의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부터는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납된 급여액만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방문’에 참석해 개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후버댐처럼 데이터댐 만들어 경제 활성화”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첫 행보 데이터·AI 전문 더존비즈온 방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美 후버댐’ 일자리 창출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판 뉴딜 첫 행보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주)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를 찾은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 지원 차원에서 밝힌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사람과 AI의 데이터 수집·가공 과정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청취한 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와 차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의 원조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추진한 뉴딜 정책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설명한 세부 정책은 다목적댐 ‘후버댐 공사’이다.

문 대통령은 후버댐 공사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댐을 활용한 각종 산업 발달, 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지화한 댐을 활용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디지털 뉴딜도) 취지는 같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에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결합해 가공하기도 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가) 많이 활용될수록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

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의 산업과 산업단지, 공장들을 스마트화 하면서 혁신하고, 기존 산업이 하지 못했던 여러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언택트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가공·결합) 과정들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 후버댐을 통해 했던 미국의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확연히 말하자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올해 못쓴 ‘항공 마일리지’ 내년에 쓸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년 연장 코로나 여파 소비자 불이익 최소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항공은 18일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쓰지 못하는 고객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1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 만료되게 됐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만료되는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 같은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축소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소멸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 마일리지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